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자'

95년도 청지기훈련 실시

1월 25일(수)부터 5차례에 걸쳐
직분별 훈련을 강화 내·외부 강사 초빙하여

95년도 청지기훈련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자'는 주제 아래 오는 1월 25일(수)부터 3월 2일(목)까지 실시된다.

금년도 청지기훈련은 1월 넷째 주일부터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게 된다.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수요2부 예배를 겸하여 참석자 전원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오후 8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직분별로 내부강사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목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에 첫시간을 시작하는데 직분별로 외부 초청 강사가 특강

을 실시하고 오후 9시부터의 둘째시간에는 직분별 기도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지기훈련은 충현기도원을 이용 교구별로 1박 2일 동안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 청지기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실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청지기훈련이 일종의 직분자 훈련인데 전 직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직분자 훈련이 될 수 없었다는 평가에 따라이다. 각 직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금년부터는 이를 바꾸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년에는 4월, 5월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1박2일로 실시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연초에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의 청지기 훈련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던 단기수련회와 4월, 5월에 실시하던 청지기훈련을 통합한 내용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단기수련회가 짧은 시간에 직분 및 분야별로 모이기에 여러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직분별로 다 참여할 수 없었음을 감안해서 금년 청지기훈련에는 매주 수,목요일에 한 직분씩 모이게

됨으로 자신이 필요한 직분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주강사로 수요일예배와 장로반을 담당한다. 초청된 외부강사는 하해룡 목사(벨렐교회), 김준규 목사(청주 중앙교회), 장차남 목사(부산 온천제일교회), 이견영 목사(인천제2교회), 이성재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정원식 장로이다. 그리고 내부 강사로 이한수, 성봉환, 윤삼중, 김찬곤, 현상민, 정광욱, 장봉생, 장경철, 김창수 목사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이다)

시간	전체 주간		1차 주간				2차 주간				3차 주간				4차 주간			
	1월 25일(수)		2월 8일(수)		2월 9일(목)		2월 15일(수)		2월 16일(목)		2월 22일(수)		2월 23일(목)		3월 1일(수)		3월 2일(목)	
	7:00-8:00	8:15-9:30	7:00-8:00	8:15-9:30	7:30-9:00	9:00-9:30	7:00-8:00	8:15-9:30	7:30-9:00	9:00-9:30	7:00-8:00	8:15-9:30	7:30-9:00	9:00-9:30	7:00-8:00	8:15-9:30	7:30-9:00	9:00-9:30
전 직분자 청년·대학생	신성종	신성종																
교역자 장로 권사			정광욱	이한수 하해룡 성봉환	기도회 김준규													
대학생 청년 전도회 치량관리·교회직원							박정규	장봉생 정광욱 장경철 김찬곤	정원식 장경철 김찬곤	기도회								
교구일꾼 새가족양육위원											신성종	성봉환 윤삼중	장차남 윤삼중	기도회				
교사 찬양대															신성종	김창수 현상민	이견영 이성재	기도회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축지원협정서 서명식

1월 14일, 오후 6시 우리 교회당에서

교회는 그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여온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을 위한 제1단계로 신학교 건물을 짓는 건축지원협정서 서명식을 지난 토요일(1월 14일) 오후 6시 우리 교회당에서 가졌다.

이 서명식을 위하여 길림성을 대표하여 길림성 기독교양회 주석인 소재광 목사와 일행 5명이 지난 1월 13일(금) 서울에 왔다.

교회는 기초적인 준비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학원 전도회 겨울 수련회 1월 26일(목), 갈릴리홀에서

학원전도회(회장 엄복섭 집사)에서는 오는 1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초·중·고·대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원전도회는 매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수련회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교회 부근에 있는 학교 신우회 소속 교사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신성종목사가 개회예배 설교를, 손봉호교수(서울대)가 '그리스도인 교사의 책임'이란 주제로 특강을, 최진연 교사(서울잠전국고 주임교사, 서울중앙침례교회 교육목사)와 이명환 교사(군산동고 교사, 참빛교회 전도사)가 학교에서의 복음전도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례발표의 시간도 갖는다.

1995년도 장학생 선발 2월 5일까지 신청받아

도서, 장학회는 1995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도서, 장학회에서 접수된 서류로 장학생 후보자를 선정한 후 3월 1일 정기당회에서 확정, 3월12일(주일) 찬양예배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래

1. 신청기간: 1. 22(주일)~2. 5(주일)
2. 신청장소: 교육국(교육관103호)
3. 선발대상: 본교회 등록 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학 중인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신학원생(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원)
4. 구비서류: 교회 소정양식(교육국

에 비치함)

5. 장학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속 부장과 위원장 및 교구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식 식사대금 인상 3월 1일부터 시행

교회는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식당을 이용하여 폐로연을 할 때 제공되는 식사대금을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3월 1일부터 1인당 1,000원씩을 인상하기로 했다.

- 뷔페(전체 18가지): 7,500 → 8,500원
- 갈비탕(전체 11가지): 6,500 → 7,500원
- 국수(전체 11가지): 5,500 → 6,500원

요한계시록 강해 · 19



구속함을 받은 자의 찬미

(계 7:9-17)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문의 144,000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1.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족, 모든 나라들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예비해두신 자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본문 13,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환난은 바로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것과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갈 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축하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레 23:39). 그것은 저들이 광야생활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극한 가난과 온갖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정이나 가라지는 다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알곡으로 뽑아서 천국창고에 거둬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표현으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될 것입니다.

(2) 이들의 서있는 위치와 찬양 10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서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송할 때는 전부 다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서서 찬송하는 관습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둘째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셋째로 찬송의 내용은 구원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평생동안 영원히 하나님께 불러야 할 찬송은 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2. 모든 천사들의 경배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경배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이 찬양은 서서 하고, 경배할 때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앞에 겸손하게 얼굴을 대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곱 가지의 칠중찬양(七重讚揚)을 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 주제를 들어 찬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 다 아멘"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멘으로 시작했다는 아멘으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첫째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며 둘째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아멘'은 '그렇게 되어서이다.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표로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는 그 분이 혼자 하지만 아멘은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천국은 무엇을 하는 어떤 곳인가

첫째로 천국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 뒤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위도식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의 섬김은 이 세상에서의 섬김과 다릅니다. 영어로 섬김을 서비스(service)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과 예배(Worship Service, Spiritual Service)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섬김이나 봉사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는 예배시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아이고 벌써 1년이 갔나, 벌써 10년이 갔나 할 정도로 그저 너무나 은혜롭고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또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들이 이렇게 섬길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1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에 가지고 다녔던 장막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친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에 피하면 죽을 죄인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은 일반적으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 또 그곳에 오면 안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막을 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넷째로 천국에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16절에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주림과 목마름이 많은 것입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젖을 주릴 때도 많고, 조금 커서는 밥을 굶을 때도 많고, 또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성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림과 목마름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항상 풍성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또 천국에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맛모섬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 속에만 피하면 시원합니다. 그곳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막을 칩니다. 창막을 치면 시원합니다. 이렇게 창막을 추위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더위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해가 아무리 내리쬘어도 창막만 치면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그들 위에 창막을 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째로 천국에서는 모든 슬픔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그런데 샅쨌같은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눈물의 풀밭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씻어주신다는 말은 제거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눈물도 흘릴 일이 없도록 모든 눈물 흘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말할 것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144,000처럼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44,000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5년 교회 주요행사 및 일정표

· 당회

행사명	일시	요일	주관부서	비고
1. 제9대 집사선거	3/19	주	당회서기	
2. 제37대 권사선거	3/19	주	당회서기	
3. 집사·권사 취임식	10/17	화	당회서기	

· 예배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신년예배	1/1	주	당회	
2. 종려주일	4/9	주		
3. 고난주간	4/10-15		당회	4/14(금) 전교인금식
4. 부활절예배	4/16	주	찬양위	
5. 어린이 주일예배	5/7	주	교육위, 찬양위	
6. 어버이 주일예배	5/14	주	교육위, 찬양위	
7. 성령강림주일	6/4	주		
8. 맥추감사절 예배	7/2	주	교육위, 찬양위	
9. 종교개혁주일				
10. 추수감사절 예배	11/19	주	교육위, 찬양위	
11. 성탄축하 예배	12/25	월	교육위, 찬양위	
12. 세례문답 및 교육			당회	세례식 전 주일요일
13. 세례식				
제1차 세례식	1/13	금	당회	
제2차 세례식	3/3	금	당회	
제3차 세례식	5/12	금	당회	
제4차 세례식	7/7	금	당회	
제5차 세례식	9/1	금	당회	
제6차 세례식	11/3	금	당회	
14. 성찬식				
제1차 성찬식	1/15	주	당회	
제2차 성찬식	3/5	주	당회	
제3차 성찬식	5/14	주	당회	
제4차 성찬식	7/9	주	당회	
제5차 성찬식	9/3	주	당회	
제6차 성찬식	11/5	주	당회	

· 찬양위원회

행사명	일시
1. 절기음악 예배	부활절/교회설립/성탄절
2. 찬양합창제	

· 인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12/10	주		
2. 위원회 봉사자 임명	12/17	주		
3. 근속 및 포상자 시상식	12/24	주		

· 기획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방간				교회요람/교회요람
2. 전산업무 개선				
3. 교회설립50주년 준비위				
4. 동서울노회 가입경연				
5. 교역자 연수회	봄/가을		당회	
6. 장로(서무/원로)수련회	봄/가을			

· 교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경로심방	1/ ~ 2/			
2. 새신자 심방				
3. 제5회 충청올림픽	10/3	화	준비위	

· 봉사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비고
1. 제1차 헌혈	6/		
2. 제2차 헌혈	10/		예수사랑 큰잔치 이전에 실시
3. 절기 구제			

· 건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기도원 확장공사				
2. 제2교육관 공사				

· 전도위원회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비고
1. 여름 전도대 파송			
2. 군목후보생 수양회			
3. 진중세례식			
4. 충청전도대 훈련	3/5~4/30		
5. 전도회 임직원 훈련	4/2~5/28		
6.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6/6~6/11	준비위	

· 선교위원회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비고
1. 당회장 선교지 순방	2/6~2/15	비서실	예배이스라엘/독일
2. 신규 선교사 모집(1차)	2/		
3. 북방선교 전략세미나	4/26-28		
4. 신규선교사 모집(2차)	9/		
5. 해외권 선교 세미나	11/16		

· 성경연구원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비고
1. 청지기 훈련	1/25~3/4	당회	
2. 주간성경공부		교육위	
제1학기	3/4~4/17		
제2학기	9/2~12/9		
3. 교사양성부		교육위	
제42기(전반기)	3/4~6/17		
제43기(후반기)	9/2~12/9		
4. 교사연장교육		교육위	
전반기	3/4~6/17		
후반기	9/2~12/9		
5. 피택 안수집사 교육	4/2~10/3	당회	
6. 피택 권사 교육	4/2~10/3	당회	
7. 교사 단기수련회	4/12~4/13	교육위	

· 교육위원회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비고
1. 겨울 성경학교	1/11~2/25		
2. 여름 성경학교	7/1~7/31		

· 교회성장연구원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1. 제3회 전국목회자 세미나		교육국
제4학기	3/6~5/8	
제5학기	9/4~11/6	
2. 농어촌 교역자 세미나	6/13~6/16	전도위
3. 국제목회자 세미나(겸)	9/26~10/5	선교위

· 도서, 장학회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상반기 장학금 지급	3/12	주	교육위	
2. 하반기 장학금 지급	9/10	주	교육위	

· 출판국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주간충청/주보	매주	주	기획실	
2. 충현의 만나	매월	주	교역자실	
3. 계간충현	계간	주	기획실	
4. 교회요람			기획실	
5. 교회 규정집			기획실	

· 충현기도원

행사명	일시	협력부서
1. 여교역자 / 사모부흥회	3/13~3/16	
2. 고난주간 금식 부흥회	4/10~4/14	
3. 기도원 설립 17주년 기념	5/29~6/1	
4. 성령대망 부흥회	6/26~6/29	
5. 교회 설립기념 부흥회	8/28~8/31	
6. 추수감사 부흥회	11/13~11/16	
7. 송구영신 부흥회	12/26~12/29	

· 총회 및 회의

행사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고
1. 정기 당회	매월 첫	수	당회서기	
2. 제직회	매3개월	주		당회 후 주일
3. 광동의회				
제1차	1/8	주		'94결산과 '95예산
제2차	3/5	주		집사/권사 선거
제3차	3/19	주		집사/권사 특, 개표
4. 특별 제직회	12/24	주	당회	
5. 총회	12월중			
교육위·찬양위				
전도위·교구위				
봉사위·선교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언 16:3)

토·막·소·식

- ◆ 우리교회 시무 장로인 안익태 장로가 개인사정으로 시무 장로직을 사임했다.
- ◆ 김광남 장로가 재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차신득 장로가 감사위원회에서 재정위원으로 이동했다.
- ◆ 교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재정을 겪고 있어 동 단체에 재정지원(일시지원)을 했다.
- ◆ 교회는 전국 남전도연합회 순회 헌신예배를 3월 12일, 본당에서 드리도록 했다. 설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한다.
- ◆ 전도위원회는 성탄절 사랑의 온차 돌리기 모금에 협조하여 일부 지원을 했고, 육군 제11사단 교육연대, 육군 반공포대대교회,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교회의 교회 신축 및 신설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 ◆ 선교위원회는 한국이슬람연구소(이

- 사장 전재옥)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 ◆ 교구위원회는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장기결석중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한 특별 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1월 한달 동안이다. 또 겸해서 1 - 2월에는 교인중 75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경로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 ◆ 봉사위원회는 시각장애학생들을 모아 교육하는 청주맹학교에 1년동안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 ◆ 제13교구 연합지역모임이 오는 1월 26일(목), 오후 6시 만나홀에서 모인다.
- ◆ 교회는 유아부 예배실 (교육관 212호) 및 영아부예배실 (선교관 1층)에 온돌시설을 하여 난방 및 영·유아들의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금년들어 신설된 유아부 (만 3-4세)가 오늘부터 교육관 212호실에서 모인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감장인 목사님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신성종 목사님 : 19일(목) 중국 길림성 신학교 관계자 만찬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며 제1차 세례식과 성찬식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이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청소년들을 위한 새해 기도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격동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재난과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지난 해 부족하였던 점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조직에 빨리 적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친숙해지게 하옵소서. 중·고동부를 이끌고 나갈 부장 장로님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일년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베풀어주시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머릿속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에 있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튼튼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서는 자람감이 되는 중·고동부 학생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5년후면 21세기가 전개됩니다. 여기 머릿속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의 주인공들로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할일 많은 이세기의 주인공이 되어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일꾼들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한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월 1일)부터 시작하여 한해 동안 드리는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모범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정성과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면려회도 조직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찬양대도 조직하였습니다. 임무를 맡은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철구(집사, 중동2부 부장)

중동 1·2·3부 연합

임직원 수련회 모여

1월 20~21일, 중헌기도원에서

중동1·2·3부 연합 임직원 수련회가 오는 1월 20 - 21일, 중헌기도원에서 열린다. 현재 중동 1·2·3부는 초동부 시절부터 각 학년별로 예배를 드리며 별개의 부서로 시작하여 연합 행사가 부진하고 선후배간의 유대, 공동체의식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우선 임직원만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수련회로 모이게 되었다.

참가대상자는 중동 1·2·3부의 임원과 찬양대원, 생애몽대원, 기자단 등 300여명이며 30여명의 교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교회학교

교사특별회의 모임 잇달아

새해를 맞아 각 교회학교가 활발하게 새해를 계획하며 움직이고 있다. 금년에는 많은 교사들의 이동이 있었지만, 새로운 지도부,교사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특히 연초에 실시하는 교사특별회의(교사전제모임 및 전년도 교사총회 속회)를 가능한 빨리 가져 서로를 익히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교회학교가 교사특별회의의 날짜를 앞당겨 잡아 1월 중순 경에는 모든 특별회의가 끝나고, 곧이어 실시되는 겨울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일·은·고·칩·시·다

기도 마침에 있어서 과거형은 고쳐야

우리는 기도할 때 공적으로 하던 개인적으로 하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습관 가운데 꼭 고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 기도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대표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 중에서는 잘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는 등등 과거형으로 기도를 마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난 번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법적인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I Love you 하고 I loved you는 전혀 뜻이 다르다. 과거형으로 하면 'I loved you'는 '과거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형으로 'I love you' 하면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법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과거로 끝났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말이다.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심정이요 앞으로도 그 심정입니다.' 하는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간절한 표현이므로 꼭 현재형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작성된 태신자카드
구역장을 통해 교구에 제출토록

지난 주일 주보에 끼워 배부된 태신자카드는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에는 전 교인이 한 사람씩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연초부터 태신자를 확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연초에 태신자

카드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또한 예수사랑 큰전치가 6월에 있게 됨으로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가능한 빨리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에 제출해야 한다.